

“전주를 특례시로”... 30만 서명운동으로 지원사격

기술원 등 100여명 범시민 운동 동참
지정 위한 홍보활동 펼쳐며 뜻 모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로드뷰 캡처

전주지역 탄소기업과 평생학습기관, 새마을회원들이 전북발전을 이끌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 원장 방윤혁)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기술원 임직원들과 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협의회 등 100여명은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북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방윤혁 원장을 비롯한 기술원 임직원 100여명은 지난 9일 국제탄소연구소 2층 홍보관에서 진행된 ‘지역발전과 경영혁신을 위한 KCTECH 정책간담회’

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홍보 동영상 시청한 뒤 서명부에 서명했다.

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협의회도 지난 10일 오후 2시 창업보육센터에서 진행된 정기 간담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며 3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기술원은 자체 서명운동에 이어 주변 지인들과 전국의 탄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홍보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장성원)와 전주시새마을협의회(회장 김진용), 전주

시새마을부녀회(회장 강영이) 등 새마을회원들도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여 일 동안 인후동 안골 광장에서 10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인후동 안골 광장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부스를 운영한다.

전주시새마을지도자들은 범시민 서명부스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전주시 35개 동 협의회와 부녀회에서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힘을 불어넣기로 했다.

전주지역 평생학습기관들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 사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과 전주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덕진노인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등 20여 개 평생학습기관은 지난 10일 전주시평

생학습관 주관으로 열린 평생학습기관장 네트워크 회의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전주 특례시 지정은 최근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면서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이끌 전주 특례시 실현이 한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월 3일까지 한 달 간 시민 30만명 서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5개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전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소상공인 맞춤형 1대1 종합 컨설팅 ‘눈길’

광주시 북구

총 100개 업체에 9개 분야 무료지원

광주시 북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신바람 나는 경영활동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컨설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북구는 외식업중앙회광주북구지부, 휴게음식업중앙회광주지회, 제과협회 등 유관기관 9개소를 방문해 컨설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컨설팅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총 100개 업체를 모집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며, 창업기와 성업기 업체로 구분해 20여 명의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총 3회, 1회 4시간 이상)을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사업타당성·상권 입지 분석·마케팅·점포운영 등 9개 분야로 이뤄지며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평가를 거쳐 차기 컨설팅에 반영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자격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종전환자 및 예비창업자이며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등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봉태영 기자

목포시, 택시요금 3300원으로... 6년만의 인상

목포시 택시 기본요금이 20일 0시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며, 거리요금은 146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15km/h이하 주행시) 35초당 100원

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0~4시) 활증은 기존과 동일한 20%가 적용되며, 시계의 활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기존 20%에서 35%로 조정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나 2km 기본 운임은 활증되지 않고 이후 거리 등에 따른 요금부터 적용된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평택시 ‘뉴딜사업’ 선정... 250억 사업비 확보

서정동 새들마을, 집수리·담장 정비
신평지역, 일자리창출·공동체 발굴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평(중심시가지형) 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250억원(국·도비 1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2018년 안정 도시재생사업 150억원, 2019년 서정동 새들마을 사업(52억원)에 이어 대형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됐다.

이로써 정장선 평택시장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신평지역 일대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국비 공모사업에 대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공모 준비에 돌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전문가 및 교수 등



평택시는 11일 국토부가 선정한 뉴딜사업 공모에 신평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발표를 하고있는 정승원 도시주택국장. /평택시

에 자문을 받아 이 지역에 적합한 재생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시는 서정동 새들마을사업은 해비타트와의 연계를 통한 집수리 지원과 넓은 담장을 새롭게 정비하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신축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평지역은 평택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차별화 전략으로 ‘도심에 젊음이 더해진 활력 있는 신평’, ‘공간에 재미가 더해진 놀고 싶은 신평’, ‘사람에 소통이 더해진 함께 하는 신평’을 주제로 ▲건교 싶은 거리 ▲신평 놀이터 ▲문화예술 창업센터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연속으로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선정된 공모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3 | 해질 / 19:04

4월 12일 (금)
음력 : 3월 8일

수도권 날씨

6~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그린 생태계 조성 환경 정화활동 펼쳐

롯데백화점광주점은 11일 광주공원 및 광주천 일대의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을것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여 롯데백화점사투데 봉사단은 이날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롯데백화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존 관련 그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

완도군, 1163명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관광지 조성·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완도군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맺은 전남 기관 2개소인 대한노인회완도군지회, 완도시니어클럽이며, 12개 읍·면의 116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 과 입원 환자 재활 지원,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EM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새싹건강지킴이, 보육시설 지원, 어구 정비, 꽃게 통발 제조, 완도 특산품판매, 할머니 정성 맛집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완도군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

지역형 일자리는 월 30시간에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6시간에 73만원, 시장형 일자리는 수익과 수당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기가 넘치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이재건 기자 wando1106@